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주민주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본격화

✎ 김순희 기자 | ⌚ 승인 2026.06.25 10:04

김해 진례면 대상 주민참여계획단 운영 - 상향식 농촌재생 모델 구축 선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이하“공사”)는 김해시 진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해시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 대표, 현안별 핵심 참여자, 지역주민 등 진례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소개, ▲과업 개요 설명, ▲세부 일정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주민이 지역의 현안을 직접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 수립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양한 소속과 연령대로 주민참여계획단을 구성하여, 진례면의 애로사항, 미래모습 등 지역민의 실제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취지다.

사업 대상지인 진례면은 과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조성된 '진례면 문화발전소'를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완성된 진례면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향후 상위 계획인 '김해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박찬희 경남지역본부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주민이 온전한 주체가 돼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주민협정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희 기자 true@newsgn.com